

담양군,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횡수·연령제한 완화

당초 생애 25회서 출산당 25회 확대
회당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지원
여성 나이 45세 기준 차등 지원 폐지
공란포·미성숙 난자 등 시술비 지원

담양군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를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난임 시술비 지원 횡수 난임 부부당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를 가질 때 25회를 지원받았어도 둘째, 셋째를 계획한다면 각 25회씩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 나이 45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했

으나 이를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회당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을 지원한다. 공란포, 미성숙 난자 채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도 시술비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e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를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한국 사회의 출산율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선발
나주시, 17일까지 75명 모집

나주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9기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28명 이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26명 이내,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기관 추천 21명 이내 등 총 7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예산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che6312@korea.kr)을 통해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공고일 기준(12월2일) 나주시 관내 주소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영업소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임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위원들은 예산교육, 토론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한다. 임기는 이달 말 최종 선정을 거쳐 2025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각계각층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령, 성별, 지역, 경력 등을 안배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선정할 계획이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위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장성군, 적발시 가맹점 취소

장성군이 오는 20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분석 후 대상점포를 직접 방문해 상품권 부정유통 여부를 단속 중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유형업소 등 등록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등이다. 특히 고액·반복결제건에 대해 부정수취, 불법환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장성=유봉현 기자



지난 6일 담양군청 민원실에서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이 시행됐다. 담양군 관계자들이 공무원 경찰과 함께 특이 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을 학습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

담양군이 지난 6일 군청 민원과에서 공무원과 경찰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실제 훈련을 가정한 특이(악성)민원의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모의훈련은 낱말이 증가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 발생 예방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훈련은 상황별 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의 적극 개입, 사전 고지 후 신체 착용 가능 카메라(웨어러블 캠)로 현장 촬영, 비상벨 작동(112 경찰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보호, 가해 민원인 제재, 경찰 인계 등으로 구성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
영광군, 13일까지 군민 대상

영광군은 오는 13일까지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군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군민 대상 온라인 투표는 적극행정 문화조성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광군청 대표 누리집(www.yeonggwang.go.kr) 내 열린군정-참여마당-설문조사 항목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군민투표'를 선택하고 게시된 적극행정 각 사례 중 3건을 선택해 투표하면 된다. 우수사례 선정은 내부 직원 투표와 군민 온라인 투표, 그리고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의 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고 사례 내용만 표기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이번 온라인 투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군정 서비스와 혁신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13기 단원 모집

19일까지 지원 가능

나주시는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제13기 단원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나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고 예술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16년에 창단된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다양한 공연과 문화 행사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예술 단체다. 합창단은 단원들에게 전문적인 합창교육과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해 음악적 기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 협동심, 책

입감 등 인성 교육도 병행해 다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모집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노래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고 합창단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나주시 누리집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병태나주시장은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음악적 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예술적 감성을 키우고 나아가

민원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배부된 웨어러블 캠 사용 방법과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기준 특이 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에 관한 교육도 함께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원 불안감 해소와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이 우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실 운영과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어르신 대상 무료 결핵 검진
화순군, 65세 이상 매년 1회

화순군은 9일 결핵 발생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무료 결핵 검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핵은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 발열, 식은땀, 체중감소 등이 있지만, 무증상 경우도 있어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에서 쉽게 발병하는데, 결핵 환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로 노인 결핵 발생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결핵 검진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결핵실로 방문하면 된다. 결핵 검진은 흉부 엑스선 촬영으로 진행되며 판독 결과 결핵의심 소견 또는 비활동성 결핵으로 판정될 시 가래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박미라 화순군 보건소장은 "면역력이 저하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결핵 예방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보건소에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